

“기술과 인간 ‘융합’의 단계 진입 원년될 것”

2020년 트렌드 분석 책 잇따라 출간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혁신 폭발기’에 다달아

공유경제 확대...더 많이 연결되고 융합하는 것이 미덕

2020년은 기술과 인간의 단순한 ‘연결’을 넘어 보다 심층적인 ‘융합’의 단계로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ABCD(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기술이 초창기 도입 단계를 넘어 ‘혁신 폭발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2020년 새해를 앞두고 트렌드를 분석한 책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K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센터의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0’ (김영사), 트렌드 분석가이자 경영전략 컨설턴트인 김용섭의 ‘라이프 트렌드 2020’ (부키), 디지털 전략 컨설팅업 아이티컨버전스랩 대표 연대성의 ‘디지털 트렌드 2020’ (책들의 정원) 등이 출간됐다.

이들 책들은 기술과 인간, 관계 등을 토대로 2020년을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미래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K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센터(미래센터)는 2015년부터 매주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를 개최해 각 분야 550명의 전문가와 함께 주제별 전망과 전략을 분석하고 토론을 이어왔다. 이번 책은 기술 발전의 시간적 흐름이라는 수평적 관점과 동서양을 넘나드는 수평적 관점을 두루 갖춘, 미래의 눈으로 내년을 바라본다.

미래센터는 대표 ICT 기술의 발전 현황과 이를 둘러싼 윤리적, 제도적 문제를 살펴보고 아울러 기술이 인간이 일하는 방식과 라이프스타일, 기호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진단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뇌공학, 유전자 편집 기술, 증강현실 등 디지털 전환의 주요 기술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스타트업 ‘뉴링크’를 창립한 일론 모스크는 새로 개발 중인 기술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2020년에는 인간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다”고.

뇌에 마이크로 칩을 이식해 수학능력, 기억력 등을 조절하는 것이 일정부분 가능해지거나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 치료와 강화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디까지 규제해야 될 지는 세계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내년은 ‘공유’가 다른 분야로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추세 가운데 하나가 원격 근무자와 프리랜서가 늘고 있다. 위워크 같은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며 일과 여가의 경계마저 모호해지는 양상이 증대된다.

미래센터는 향후 ‘공유경제’가 확대돼 ‘공유문화’로 진화하면 자본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로인해 “미래에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많이 연결되고 다양하게 융합하는 것이 미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용섭 경영컨설턴트의 ‘라이프 트렌드 2020’은 끈끈한 관계보다 ‘따로 또 같이’를 선택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숨은 욕망에 초점을 맞췄다. 책에는 2020년 라이프 트렌드를 주도할 ‘12부류의 사람’을 분석했다. 다음은 12부류의 사람들이다.



‘Weak Ties’ (느슨한 연대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사람들), ‘Agile’ (긴 노동과 원격 근무, 겸직을 하는 사람들), ‘Flygskam’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따져가며 소비하는 사람들), ‘Alpha Generation’ (인공지능 시대의 강력한 소비 세력), ‘Bio Hacking’ (자신의 몸을 바이오 해킹하는 사람들), ‘New Patriotism’ (애국심과 자존감이 결합된 새로운 애국주의자들) 등이다.

또한 ‘Taste Inflation’ (자기만의 취향과 욕망을 신화하는 사람들), ‘Coexistent Reality’ (가상과 공존 현실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Ageless’ (나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진 사람들)이 있다. 아울러 ‘Elegant Poverty’ (가난해도 당당하게 잘 살고 싶은 사람들), ‘Sustainable’ (서스테이بل 라이프를 지향하는 사람들), ‘Companionship Industry’ (외로움과 싱글 라이프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책은 2020년 한국의 컬러, 라이프스타일, 소비,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키워드이자 향후 10년을 주도할 라이프 트렌드라 할

수 있다.

연대성 대표의 ‘디지털 트렌드 2020’은 디지털 혁신이 비즈니스와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놓을 것인지 초점을 맞췄다. 책에는 ‘개인’, ‘공간’, ‘충돌’이라는 세 키워드에 주목한다.

‘개인’에서는 감성 AI와 인공지능 객체 인식을 통해 인간의 언어는 물론 표정, 감정, 생체 신호까지 파악하기 시작한 인공지능 미래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로 대표되는 OTT 시장에 대해 분석하며 기술 마케팅 영역에서의 ‘개인화’를 진단한다.

‘공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공유 경제’다. 카풀뿐 아니라 공유 주차장, 공유 주방까지 이른 ‘공유 시스템’이 제한적인 공간의 개념을 어떻게 바꾸어놓았는지 분석한다.

‘충돌’에서는 디지털이 가져올 변화를 다룬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 중독’. 저자는 ‘디지털 디톡스’가 왜 필요하며 나만의 ‘디지털 루틴’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탐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00일 동안 글쓰며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 발견

12명이 쓴 100일 글쓰기 모음집 ‘오백 번의 로그인’ 출간

글쓰기 공동체를 꿈꾸는 열두 사람이 쓴 100일 글쓰기 모음집 ‘오백 번의 로그인’ (경진출판)이 출간됐다.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글을 쓴다는 콘셉트의 100일 글쓰기는 치열한 여정, 타인과의 소통을 담은 묶음집이다.

이미란 전남대 국문과 교수와 강의준 목사, 조부덕 예방치의학 박사, 김현정 순천대 교수, 광경숙 광신대 교수, 김세영 전남대 강사를 비롯해 박비오, 장영순, 진이위, 권영희, 임유진, 김현승 씨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필자로 참여했다.

이번 글쓰기는 지난 2017년 3월 1일 ‘글쓰기 치료 연구’ 카페를 통해 시작됐다.

구성원들 중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이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북 학기와 가을 학기가 시즌을 여는 시기가 됐다.

2019년 6월 8일까지 ‘100일 글쓰기’의



다섯 시즌에 모두 참여한 사람은 500일 동안 500번 이상을 카페에 접속해서(동료의 글을 읽고 댓글도 썼기 때문에) 글을 쓴 셈이다. 이러한 연유로 책 제목 ‘오백 번의 로그인’이 탄생한 것.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글을 쓴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정이지만, 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인간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다. 또한 서로에게 독자가 되고 정서적 지지자가 되는 글쓰기 방식을 통해 자기 검열이 덜한 글, 마음을 털어놓는 글을 씀으로써 글쓰기의 재미와 치유적 효과를 얻는다.

이미란 교수는 “이러한 글쓰기 모임이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러한 글쓰기 운동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고 밝힌 의견을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예·전각의 매력 느끼세요

학정연우서회 회원전

29~다음달 5일 금호갤러리

한문·한글 서예와 전각 등 서예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사)학정연우서회(회장 유백준) 43회 회원전이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학정 이돈홍 선생을 사시하며 동국전체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학정연우서회는 매년 주제를 정해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올해 주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국의 호남 정신 현장전’으로 사암(思庵) 박순(1523-1589) 선생의 정신이 담긴 글들을 작품 소개로 했다.

나주 출신인 사암 선생은 영의정 등을 지낸 문신으로 국내의 불합리한 분정을 조정하며 선비의 정도를 걷은 인물이며 그의 문장은 멀리 중국에까지 알려져 칭송받았다. 특히 선조(宣祖)는 선생의 성정을 ‘소나무, 대나무와 같은 절의가 있고, 물에 비친 달처럼 맑은 정신을 가졌다’는 뜻의 ‘송죽절조 수월정신(松竹節操 水月精神)’이라 표현하며 여겼다.

10여명의 회원들은 사암 선생이 남긴 448제, 692주의 한시 작품 가운데 마음에 드는 글귀를 골라 한문서예 5체(전서, 예서, 초서, 해서, 행서)를 비롯한 한글서예, 다양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전각 등



유백준 작 '초학대'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냈다. 이돈홍·박래호·박수선 선생도 찬조출품했다.

1975년 창립된 학정연우서회는 매년 회원전을 열고 있으며 세계청소년서예대전을 해마다 개최하는 등 서예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오픈식 29일 오후 5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의 사계’ 중국 무대에서 갈채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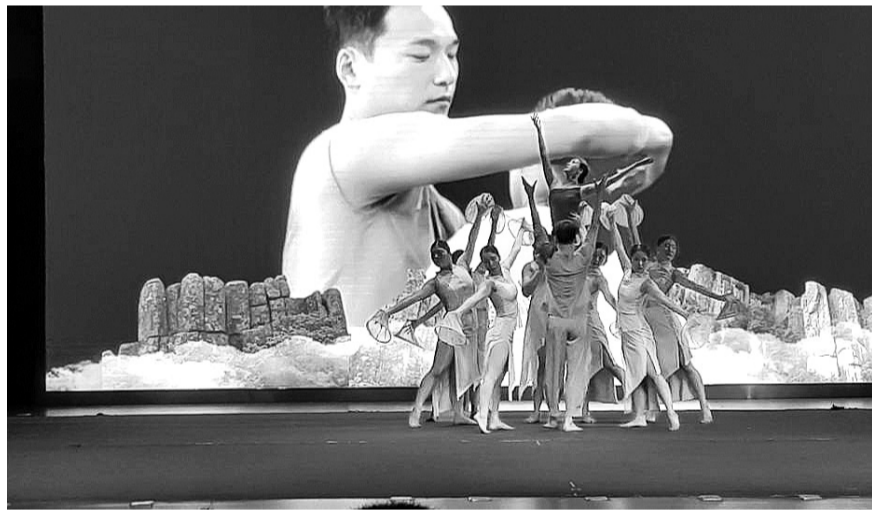
동아시아 문화교류사업 일환

광주시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중국 취안저우시, 일본 요코하마시와 함께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이후 세 도시는 해마다 각 도시를 오가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쳤고 지난 7월에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는 두 도시가 예술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최근 열린 중국 취안저우 해상 실크로드 축제에서는 무등산의 아름다운 사계를 현대무용으로 표현한 작품이 공연돼 갈채를 받았다.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

원지원포럼(회장 지형원)이 동아시아문화교류 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에는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이 참여해 25일 취안저우 옹춘 노스텔리아 공연장, 26일 공자의 사당이 있는 원마오광장 무대에서 ‘무등의 사계’를 공연했다. 무등산 입석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무등의 사계’는 ‘광주 아리랑’ 등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무등산의 모습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냈다.

중국 취안저우해상실크로드국제예술제는 중국 복건성 취안저우시가 2년에 한번씩 개최, 올해로 네 번째로 열리고 있는 중국 대표 문화축제다. 이번 예술제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원년도시인 광주시와 더불어 한국의 정주시, 제주도, 일본의 요



임지형무용단의 ‘무등의 사계’.

코하마시 및 해상실크로드 연안국 60여 개국이 참가했다.

임지형 대표단장은 공연 후 “향후 다른 동아시아문화도시에도 광주의 사계절을

선물하고 싶다”며 “취안저우와 광주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三代(삼대)원조 나주곰탕

무안군 상항읍 오동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가능 단체환영
☎061)287-3229, 010-3602-0297

황금세차장(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단에서 호천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062)652-4564

참깨와들개

나주시 나주로15 (나주신협앞 다리 건너 위)
김밥·멸치국수전문점
김밥&멸치국수전문점
☎061)332-9992, 010-7103-2556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학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 (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현대목공예사

북구 신안동 239-2 (전대정문사거리)
목공예, 서각현판, 각종 원목침대, 서예부품
☎062)523-0408, 010-2631-0408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치평동 세정이웰컴점동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동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관·양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철종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OK당구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가오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병, 난방 완비 친절, 신용 분위
☎ 010-8005-0188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 신용, 분위
☎062)222-2424, 011-664-2202

고전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학·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행연!!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제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 010-3906-1718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클로버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동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팔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